

# 무주군, 농장 민원처리 '비난'

## 자동차 등록 지연으로 인근 시군서 처리 불편 커

무주군에서 자동차 등록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원서비스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함에 있으나 무주군 민원서비스는 담당과 간부들의 미온적 태도와 소극적 대응으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타 지역에 의뢰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세입이 공무원들의 급여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

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장 민원 처리로 타 지역에 적은 세입을 빼앗기는 불상사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무주군에서 자동차 등록 민원의 농장 처리에 불만을 갖고 인근 지역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에 민원을 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져 군재정과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소모는 물론 무주군의 행정서비스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원인들은 "인사 이후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빠른 처리를 요하는 민원에는 능숙한 담당을 배치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간부들의 미온적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인 50(모)씨는 "무주에서 차량 등록 민원이 농장 처리되고 있어 타 지역에서 차량을 등록했다"면서 "신속, 정확, 친절을 말로만 외치고 있는 무주군의 행정서비스를 비난하고 담당 공무원이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민원 담당이 자주 바뀌고 있어 능숙하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복지사업 통제는 사회복지 국정화"

## 이혜양 무주군의원, 5분발언서 정부 지침 중단 촉구

무주군의회 이혜양 의원(사진)이 지난 18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정부의 일방적인 지역 복지사업 통제는 "사회복지 국정화"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혜양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복지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정부와 유사·중복사업 폐지와 신규 복지사업 강제협의를 대한 정부의 지침에 조속한 중단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복지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며 시대적 발전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국정화"와 다름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제정 및 예산을 반영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이며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의 운영이 결정되고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패널티 감압을 내세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는 예산 없이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60여 개의 국가 복지사업을 환원해 가야하며, 그래서 지자체의 대부분인 국비매칭 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으로는 지자체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출신다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열악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총운영비에서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건비 상당



그랜비와 관리비 부족 논란으로 관련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자 복지부는 그 지침을 다시 유예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복지정책 폼수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정부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은 힘겨운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군은 매우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수종의 자세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에 의해, 폐지와 단계별 폐지 4개 사업과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득했음에도 정부의 재의 지시에 3개의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사업 포기 또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진행 등을 추진하면서, 무주군 의회와는 어떠한 협의와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내년도 공모사업 207억 확보

진안군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얻은데 이어 2017년 신규 공모사업 3개 분야 5건에 2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작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령면(80억원)·정선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41억원),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40억원), 동산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7

억원), 배내실지구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9억원) 등 국·도비 148억원을 포함해 총 207억원을 확보해 금년부터 향후 3 ~ 5년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3개 분야 5건의 신규 공모사업비 218억원을 확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 15일 '원구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

조' 사업비 16억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나머지 4건(추진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용담 와룡, 안전 노재, 진안읍 통합지구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통합지구)" 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항로 군수와 전북대 농생명 손재권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읍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와 계획서 작성 자문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 무주군 SNS 이용자 가장 바라는 것 '문화관광 콘텐츠 확산'

무주군 SNS 이용자들이 올해 무주군에 가장 많이 바라는 점은 '완주문화관광 콘텐츠 확산'으로 조사됐다.

군이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완주에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올해 무주군에 가장 많이 바라는 점은 '완주 문화관광 콘텐츠 확산(2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주 SNS 이용자들이 '청정완주에 대한 기대감과 완주 여행 및 관광에 대한 호기심' 등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된 '완주에 소원을 말해봐' 페이스북 이벤트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해 완주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일, 완주에 대한 바람 등의 내용을 댓글로 남기고 공유하는 것으로 1,288개의 '좋아

오'와 554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군의 관광명소와 맛집 등 문화·관광정보 콘텐츠 확산(28.3%), 교통복지 1번지 완주에 대한 기대(19.5%), 꽃길·생강 등 완주 특산품에 대한 홍보(14.7%) 등의 내용이 많았다.

또한,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걱정 없는 완주군이 되어달라'(10.6%), '완주와일드푸드 축제 등 가보고 싶은 축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8%), '아이를 다섯까지 낳아서 완주군 보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싶다'(7.2%), '으뜸상품권 이용으로 완주 지역경제 대박(5%)', '시 승격에 대한 기대(4.9%) 등 문화에서부터 지역경제, 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댓글로 나왔다.

/완주=이중복 기자



#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전국대회서 금1·은2 획득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선수들이 제 27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바이애슬론대회 개인 및 단체종목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바이애슬론대회는 사단법인 바이애슬론 연맹이 주최한 가운데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됐으며,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은 지난 16일 열린 개인 스프린트 20km 종목에서 김태민 선수가 1위, 최두진 선수가 2위를, 지난 17일 열린 단체 계주 22.5m종목에서는 최두진 김태민 최찬환 선수가 출전해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군청 바이애슬론팀 김효엽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지난 1월에 개최됐던 회장컵 전국 바이애슬론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쁘다"며 "지역 여건과 선수 개개인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통해 앞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김효엽 감독이 이끄는 무주군 바이애슬론팀(남자)은 2011년 창단돼 이수영(국가대표), 박효범, 최두진(국가대표), 김태민, 최찬환 선수 등 6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종합선수권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50여 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등 실력을 뽐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추진 TF팀 구성 본격 활동 돌입

무주군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군은 그동안 총괄운영과 홍보지원, 환경시설지원, 친절·위생·먹거리지원 등 각 분야별 추진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는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군민참여를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총괄 운영 팀에서는 앞으로 무주투어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운영, 군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대회준비를 위한 10개 사업 추진에 매진하게 되며 환경시설지원팀이 주축이 돼서는 꽃길 조성과 태권도원 진입로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물과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9개 사업이 병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개

장수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4억4천만여원을 확보하고 130등을 대상으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전 주택으로 군은 연령, 소득 수준, 노후정도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 가구당 최대 33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지도도비(350-2338)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보건소, 치매 예방 순회교육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소내)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27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자살 및 치매 예방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 2월말까지 136개소를 실시하고, 3월 농번기부터는 월 15회 정도 순회교육을 실시해 올 연말까지 관내 전체 경로당 순회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전문강사인 이정복 교수는 지역주민에게 웃음을 통한 행복 만들기, 치매원인 및 예방 등 이론교육 및 레크레이션, 웃음·노래·마술을 접목시켜 행복을 찾는 시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군, 마을회관 방역소독 실시

장수군은 지카바이러스 유입차단과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달 말까지 마을회관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장수군보건요원에 따르면 마을회관 이용률이 높은 동절기 위생 해충과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마을회관 225개소를 대상으로 소독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썩크래, 화장실, 신발장 등 해충의 서식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 지카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요원 관계자는 "정기적인 마을회관 방역소독을 통해 주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장**

행사문의  
진안군청 권박산업과  
063-430-2951